

서점가 휩쓰는 '시한부 종말론' 도서

걸프전 계기로 부쩍 늘어나...사회적 불안감 조성

10여년 전쯤 시중에는 1999년 종말을 예언하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책들이 크게 유행한 적이 있다. 이후 80년대 말부터는 이른바 '携擧說'에 근거한 1992년 종말론이 개신교 일각에서 제기되면서 관련도서들이 등장하기 시작, 최근에 이르러서는 걸프전이라는 시기적 상황과 맞물려 각종 종말론 도서들이 서점의 점두를 장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국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닌 듯, 2월 11일자 「타임誌」 「오늘의 묵시록」이라는 제하의 에세이를 통해 미국에서도 종말론 관계 도서들이 붐을 이루고 있음을 전하고 있다.

난세 때면 고개를 든다는 종말론이 지금까지는 모두 불발에 그쳤지만, 2천년대의 청사진을 어둡게 하는 오늘날의 종말론은 이제 종교적 계시의 영역을 넘어 활자로 범람하면서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요인으로 작용,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휴거론 근거한 예언서가 대부분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성경에는 노아의 방주나 소돔과 고모라 등의 예를 통해 이미 '종말'에 대한 계시와 그 참담한 결과가 묘사돼 있다. 문체는 성경에 기술된 '이미 일어난 사실'들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사실'들에 대한 부분으로, 여러 해석이 분분한 요한계시록이 특히 종말론의 '온상'으로 주목되고 있다.

현재 서점에 대거 진출해 있는 종말론 도서들은 바로 요한계시록을 나름대로 해석, 인류 종말의 명확한 날짜까지 제시하는가 하면 '그

날'을 위한 신자들의 예비를 경고하고 있다. 시리즈 4권까지 나와 있는 「다가오는 미래」(이장림, 도서출판 광천)를 비롯해 「예수님은 휴거받을 자를 뽑는다」(임원순, 지구촌선교출판사), 「휴거」(E. M. 앵글리 / 이영조, 풍림 / 지성문화사), 「휴거 그 이후의 생존」(리처드 W. 디한 외 / 이상길, 이하 크리스찬비전하우스) 「휴거와 천년왕국」(살렘 키르만 / 이상길), 「그들은 성도들의 휴거를 보았다」(클라크 외 / 이상길), 「휴거의 카운트다운」(홍의봉, 목민) 등 수십종에 이르는 '예언서'가 종교서적 코너 뿐만 아니라 추리소설 코너까지 잠식하고 있는 실정.

서점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들 도서들은 하루에 평균 2~30권씩 꾸준한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기독교 신자들이 주구대천이었음에 비해 걸프전 발발 이후에는 청소년층을 비롯해 점점 독자층이 확대되는 추세라고 한다.

종말의 날이 오면 그동안 착실히 예수의 재림을 준비해온 신자들이 하늘로 들어올려진다는 휴거론에 근거한 책들은 대부분 저자 자신의 영감이나 하늘로부터의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 종말을 예고받았음을 주장하면서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려는 성도"가 돼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소설의 형식을 빌려 휴거서의 '대환관'을 실감있게 묘사한 '계시소설'까지 등장해 독자들의 관심을 자극하고 있다.

국내외 정세 반영한 종말중후 제시

이들 중 88년부터 선보이기 시작한 「다가오는 미래」 시리즈는 '1992년 종말론'을 본격적

난세 때면 고개를 든다는 종말론이

지금까지는 모두 불발에 그쳤지만,

2천년대의 청사진을 어둡게 하는

작금의 종말론은 때맞춰

터진 걸프전 파동과 맞물려

이제 단순한 종교적 계시의

영역을 넘어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으로 주장하고 있어 종교계 내부에서도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1992년은 서서히 하늘문이 닫히면서 역사의 종말을 고하게 될 가장 비극적인 해이면서도 인류의 소망을 함께 수용하고 있는 휴거라는 대탈출 사건도 있어, 희비가 엇갈리는 갖가지 해프닝이 속출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데, 특히 이 시리즈가 독자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이유는 '운명의 10년'으로 규정된 90년대의 갖가지 종말 증후들을 현실감 있게 지적하고 있기 때문.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이원 대립양상이 종식되면서 새로운 세력(EC 통합에 의한 유럽합중국, 중공 및 아시아그룹)이 등장하고 북한이 문호를 개방하게 된다는가 성서에 나타난 종말 직전의 상황인 향락문화가 만연하고 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이같은 징후들은 모두 1992년에 이르러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게 되면서 급기야 종말이 도래한다는 내용은 작금의 현실에 비추어 설득력을 갖는다는 분석이다.

휴거론과 함께 대두되고 있는 또하나의 종말론이 이른바 '666설'. 「현실로 나타난 666」(서달석, 생명의서신), 「세계정부와 666」(메어리 S. 렐프 / 장인순, 이하 문진당), 「세계 독재자와 666」(), 「컴퓨터와 짐승의 표 666」(데이비드 웨버, 노아 허칭스 / 장인순) 등이 이 설을 다루고 있는데, '666'이라는 숫자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것으로 흔히 악마나 짐승의 표시를 일컫는 숫자로 통용돼 오다 최근에는 컴퓨터를 상징하는 숫자로 해석되고 있다. 컴퓨터에 대한 의존도가 최근의 추세대로 나간다면 앞으로 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까지도 컴퓨터에 저장되고 한사람의 '敵그리스도'가 슈퍼컴퓨터를 이용, 전인류를 지배하게 된다는 이 666설은 인류 역사의 최후에 이뤄질 사회·경제적 상황을 '컴퓨터피아'에 의 '꿈'과 연결해 그려내고 있다. 이들 666설을 담은 책 속에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EC 단일시장·단일화폐 문제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신용카드이용 문제를 예로 들고 있어 눈길을 끈다.

지금까지 소개된 도서들 이외에도 「아마겔돈 전쟁」(존 F. 윌부르트 / 권명달, 보이스사) 「아마겔돈」(빌리 그레함 / 전민식, 지성문화사 / 학일출판사) 등 "세계종말의 날에 벌어지는 선과 악의 대결장"인 '아마겔돈 전쟁'을 다룬 도서들도 종말론을 부추기는 데 한몫을 하고 있다. 이들 도서는 '인류 최후의 전쟁, 3차대전' '지금 걸프만 전쟁은 무엇을 뜻하는가'라는 부제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 최근의 걸프만 전쟁과 성서에서 예언한 아마겔돈 전쟁과의 유사점(중동이라는 공간, 이스라엘을

오테영長篇小説

사요나라 기꼬

값 3,800원

지금 서점에서 만나 보십시오.

소담출판사 TEL: 925-3610 FAX: 924-3236

1990년 6월 29일 기꼬는 황태자비가 되었다.
1987년 1월 15일 박종철은 물고문으로 죽었다.
도대체 이 두 사건은...

박종철과 물고문, 권인숙과 성고문 - 암울했던 그 시절, 인간의 고기를 먹고 자궁속으로 도피했던 한 지식인은 절규한다.
그의 죄의식은 짐승의 관능과 외설에 뒤엉켜 스스로를 연기하고 변명한다.
남과 여의 섬뜩한 오르가즘에 얼룩진 관능의 에피소드로 일본의 순결을 짓밟으며...
설익은 애정의 논리, 휴머니즘의 껍질을 버리고 인간과 시대의 병리를 파헤친 잔혹한 소설미학 -
그 파행적 관능은 언제, 어떻게 끝날 것인가?



인류종말을 예고하는 각종 도서들이 서점가를 장식하고 있다.

비롯한 아랍권과 미국·유럽·아시아를 망라한 다국적이 개입된 '세계대전'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지난 81년 출간돼 현재 27판까지 기록하며 꾸준한 판매부수를 유지하고 있는 「지구 최후의 날」(고도 벤 / 이윤기, 고려원)을 비롯해 「노스트라다무스 새예언」(노스트라다무스 예언연구회 편저, 하늘) 「노스트라다무스의 대예언 1999년 7월」(고도 벤 / 강은성, 고려문화사) 등 일련의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서들도 요즘의 종말론 유행에 편승,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교계 안팎서 우려의 목소리 높아

일종의 세기말 현상으로 보이는 이러한 '시

한부 종말론'은 특히 교계의 예민한 반응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월간 「현대종교」(대표 탁명환)에서는 종말론 특집을 기획, 별책 단행본을 묶어 내면서 본격적인 종말론 비판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위험수위에 다다른 사이버 종말론들을 비판하고 종말론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고자" 마련된 이 특집은 그동안 발표됐던 종말론 관계 기사와 논문들을 모은 것으로, 예수 재림과 종말의 날은 성경에 의해 확실히 보장된 사실이나 그 시기에 대한 선부른 단정은 자의적인 성서해석에서 기인한 오독의 결과라는 것이 대부분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다. 더불어 종말론을 빌미로 교세확장을 노리는 '불순한' 동기가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김봉준 목사(순복음교회 부소장)는 "항간에 떠도는 종말론 도서들은 이제 단순한 신앙서적의 차원을 넘어 종말론 추종자들의 교리서로 변모되면서 오히려 신앙생활에 혼란을 야기시키고 사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성경에 근거한 종말의 교리는 성경 곳곳에 흩어진 재림의 예언에 대한 조직신학적 접근을 요하는 섬세한 부분으로 차질 잘못하면 인간의 나약한 심성을 건드리는 심리적 종말론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한편 종말론에 대한 우려와 비판은 사회학적 관점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20세기의 마감을 앞둔 시점에서 터진 걸프전쟁이 몰고온 위기감이 국내외 정치·사회상황의 급격한 변화에 편승해 종말의식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해석이다. 정진홍(서울대 종교학과)교수는 "종말론은 종교문화가 안고 있는 중요한 상징의 하나지만 그것이 특정한 종교적 주장으로 머물지 않고 사회전반에 보편적 징후로 확산되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현상은 우리사회의 황폐함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의 반증이며 종말의 도래를 오히려 기대하는 강한 의지의 확산이기도 하다"고 진단한다.

개혁의지의 일단으로도 볼 수 있는 종말론은 토마스 뮌쩌가 이끌었던 종교개혁 직전의 농민운동이나 70년대 남미의 오순절운동의 경우처럼 사회변혁의 힘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출판계에까지 밀려온 종말론의 열풍은 현실도피심리나 사회적 무관심·무책임을 야기하는 종말론의 역기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왜곡된 내세관에 집착한 또다른 형태의 이기주의라는 혐의를 벗을 수 없을 것이다.

'시한부 종말론' 도서들에 대한 이러한 비판적 시각은, 특히 환경오염·생태계파괴에 의한 지구의 종말을 경고하면서 갖가지 분석과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는 '환경도서'들이 좋은 평가와 반응을 얻고 있는 현상과 대조를 이루면서 교계 안팎으로 의미있는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정소연 기자

신간종합정보지

광고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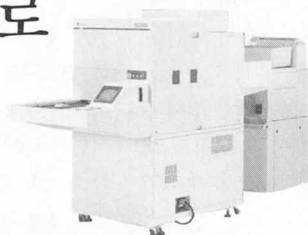
베스트셀러 진입은
광고전략으로 시작합니다.
작은 광고도 정성껏
상담해 드립니다.

전화 732-1431~3
FAX 722-1174

□ 단색 SCANART 30 II

이제는 **카메라가 아닌 스캐너로**

- 저렴한 가격 실현
- 선명한 망점 재현력
- 신속한 처리 능력



촬영하는 시대입니다.

SCANART 30 II의 용도

- ◎ 2°이내의 각종 간행물의 사진 분해 및 재판
단행본 / 월간지 / 전집물/사보
- ◎ 더블톤(Double Tone)으로 처리되는 특수인쇄물
인물사진/미술사진/제품 카다록

신영프로세스

서울시 중구 초동 106-27(오양B/D4F)
TEL. 268-3808~9